

아직도 빈곤층 704만명 '사각지대' 추산

지난해 15만명 ↑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원인"

올해 목표 '현상유지' ... "급격한 예산증가 반영 필요"

지난해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203만명 가까이 복지 혜택을 받았지만 아직 빈곤층 704만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거란 추산이 나왔다.

11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빈곤층 대비 복지수혜 비율은 22.4%로 집계됐다. 2015년 21.4%에서 2017년 20.8%까지 떨어졌다가 1.6%포인트 올라갔다.

빈곤층 대비 복지수혜 비율은 정부 공식 통계는 아니지만 정부가 추진한 복지 사업 성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다.

지난해 빈곤층 906만9360명 중 복지혜택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202만7894명이었다. 2015년 196만2495명에서 2016년 193만2437명, 2017년 187만2197명까지 감소했던 복지수혜자는 1년 만에 15만5697명 늘어났다.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던 복지수혜자가 지난해 급증한 데 대해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민등록 인구수 증가 인원도 매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실제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제도 수급자가 174만3690명이었다. 2015년 164만6363명에서 2016년 163만0614명, 2017년 158만1646명까지 감소했으나 10.2%(16만2044명)로 크게 증가했다.

중위소득 50% 이하 중 차상위계층에 해당해 정부로부터 각종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받은 사람이 27만3880명, 자활근로 등 차상위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사람이 1만324명 등이었다. 이는 2015년 30만521명과 1만5611명에서 각각 2만6641명과 5287명씩 감소한 숫자다.

그러나 복지수혜 비율이 22.4%란 얘기는 아직 빈곤층 100명 중 88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빈곤층은 주민등록 인구수(5182만6059명)에 2015~2017년 3년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상대적 빈곤율 평균값인 17.5%를 곱해 산출한 숫자다.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전체 가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가구 소득(중위소득)의 50%가 안 되는 인구 비율로, 2017년 1인 가구 기준 소득이 1322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보면 된다.

1년 소득이 중위소득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704만1668명은 기초생활보장 제도나 차상위계층 지원제도와 거리가 있을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올해 목표치는 현상 유지 수준인 22.5%다. 복지부는 "주민등록 인구수 증가

둔화 및 올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효과를 반영 시 지난해 실적 대비 상승이 필요하다. 이는 급격한 예산 증가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전년 실적을 반영한 22.5% 유지가 필요하다"며 목표 설정 근거를 설명했다.

정부는 2017년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발표 이후 그해 11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중증장애인·노인이 포함된 경우를 시작으로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올해 1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노인(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오고 있다.

여기에 6월부터 개정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위기가구 발굴 범위를 넓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연계 정보 15개 기관 29종에서 17개 기관 32종(공동주택관리비 체납정보, 휴·폐업사업자 정보, 세대주 사망 가구 정보)으로 늘리고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자 정보와 극단적인 선택 시도 정보 입수 범위를 확대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

순천시,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행정으로 만족도 'UP'

순천시는 사회보장대상자에 대한 신청에서 조사, 지원·관리까지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 추진으로 대상자 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 신청하시면 어디든 찾아갑니다. 맞춤형 통합조사

순천시 통합조사팀은 총 7명으로 24개 읍면동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모든 건에 대해 조사를 추진하는 전문팀이다.

신청은 보장을 희망하는 가구의 가족 또는 친척 등 관계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읍·면·동 사회 복지담당공무원 등이 신청가구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을 비롯한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등 총 13개 복지사업을 망라한다.

모든 조사는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신청자 가족과 지참에 의한 부양의무자의 재산(금융재산 포함)과 소득에 대한 전산 조화가 회신되면 구체적인 조사가 시작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과 한부모가족 신청자에 대해 조사 팀원이 직접 가정방문해 세

심한 상담을 통해 복지욕구와 생활실태를 파악한다.

장애수당을 비롯한 장애연금, 기초연금, 교육급여 등 기타 복지신청 건에 대해서는 행복e음 상, 전산 조회 결과에 따라 보장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에서 결정까지 소요기간은 30일 이내며, 금융조회 등 전산조회 회신이 늦어지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7월 말일 기준, 사회복지급여 신청은 총 3056건으로 보장적합은 2113건 부적합은 943건으로 적합이 69%선이다.

▶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촘촘한, 맞춤형 통합관리

순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3개 사회보장급여(국민기초, 한부모,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등)가구는 7월말 기준 47415세대로 통합관리팀 8명이 관리한다.

보건복지부로부터 행복e음을 통해, 복지대상자 및 부양의무자 전체에 대해 상·하반기 재산·소득·인적정보 자료를 배포 받아 관리한다.

더불어 매월 복지대상자가 신규 취득한 재산 및 소득과 인적정보 변동(사망, 전출입, 군입·제대, 교정시설 입·퇴소, 복지시설 입·퇴소 등)등을 배포 받는다.

통합관리팀은 행복e음을 통해 자료가 배포되면 각 세대별로 직접 통화 및 방문하여 소명기회와 제출자료 안내 등의 확인을 통해 자격을 관리한다.

배포된 자료를 기초로 통합관리팀은 상반기 확인조사와 월별 확인조사, 변동자료 수시 처리 등 7월말 기준 총 43014건을 처리했다.

처리결과는 기준 급여 유지 및 급여 증가·감소, 급여 중지 등으로 결정되며, 중시대상자에 대해서는 '순천형생활안정비' 연계 또는 차상위대상자로 연계 관리한다.

한편, 사회보장급여 대상(47415가구)가구는 7월말 순천시 가구(113890가구) 기준 24.4%며, 통합조사팀 1인당 월 조사 건수는 60여 건이며, 통합관리팀 1인당 월 관리 건수는 770여 건이다.

▶ 희망을 주는 생활안정 대책, 순천형 복지사업

순천시는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또는 국민기초로 보호 받던 중지원 가구 등 복지사각지대 지원·관리를 위해 '순천형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형복지사업'은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법·제도권 외 대상자들

을 아우른, 모두가 행복한 순천 완성을 위해 촘촘하게 추진하고 있다.

주요사업은 '순천형생활안정비' 지원과 '저소득 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이며, 사업비는 총 3억7천5백만원으로 시비 100%가 투입되는 특수시책이다.

먼저, '순천형생활안정비'는 국민기초 중지와 사회보장 신청 후 부적합 또는 실질적인 생계곤란 가구에 대해 6개월간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비를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매월 개최되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세대, 차상위계층 고등학교 입학생 자녀이며, 중학교 입학생은 시 평생교육과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은 연 2회 2월과 6월에 지원되며, 동복은 20만원, 하복은 10만원으로 1인당 총 30만원이 지원된다.

장일중 시민복지국장은 "복지대상자 지원·관리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은 각 가정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바탕으로 어려운 생활을 함께 개선하려는 의지와 공감이 있어야 한다"며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통해 사회복지공무원들의 마인드를 향상시켜 대상자와 함께 win-win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신안군 "지역사회중심 장애인 재활교실 운영"

신안군 보건소에서는 천사대교 개통과 함께 중부권 지역 장애인 대상으로 재활 및 건강관리교실을 운영한다.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 중 뇌병변, 지체장애가 있는 11명을 선정하여 8월 7일부터 5주간 기본 건강체크 및 통괄관리, 재활운동, 구강검진, 영양교육, 심뇌혈관계방교육, 음악리듬(정서적지지), 만족도 조사 등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재활과 건강관리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번 재활교실 운영을 통해 장애로 인한 2차적 질환예방과 의료이용 불평등을 해소하여 장애인 욕구에 맞춘 통합서비스제공과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한다.

신안군에 4,387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으며 그중 203명에 대해 보건소 전문 재활물리치료사가 가정방문을 통하여 개인별 건강상태에 맞는 맞춤형 건강보관관리 시스템에 따라 통괄관리 및 재활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Yegother 광산구